

## 흑서기 이후 가축사양 및 위생관리 요령

### 《 한우 》

#### □ 사양관리

-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소의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이므로 적절한 사양관리로 송아지 육성, 번식관리 및 비육에 힘써야 한다.
- 폭염은 끝났으나 여전히 음수량이 많으므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고, 급수기를 자주 깨끗이 청소해 주어야 한다.
- 비타민과 광물질 등 첨가제를 축사내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.
- 비육 말기에 있는 비육우는 출하체중을 높이고 육질이 향상되도록 사료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한다.
- 번식우는 아침, 저녁으로 발정관찰을 실시하여 적기에 수정시켜 번식률 향상에 힘써야 한다.

#### □ 방역 및 위생관리

- 한낮에는 덥지만 아침, 저녁에는 시원해지면서 일교차가 커지므로 호흡기질병과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.
- 축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,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파리, 모기 등 외부해충을 퇴치하도록 한다.
- 섬유질배합사료 등 수분이 많은 사료를 급여할 경우, 사료통내 변질된 사료는 자주 치워 소화기질병 발생 및 사료섭취량 감소를 방지하도록 한다.
- 분만실의 습도 및 환기에 주의하고, 건조한 깔짚을 충분히 깔아 주어 갓 태어난 송아지가 오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신생송아지는 충분한 초유공급과 일교차 등에 대비한 방풍·보온 관리로 호흡기 및 설사병을 예방하도록 한다.

## 《 젖소 》

### □ 사양관리

- 여름철 더위스트레스로 인해 줄었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산유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균형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한다.
- 산유량이 많은 고능력우, 특히 분만 직후 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 번식능력 극대화를 위해 미량 광물질(아연 등)을 보충 급여해 준다.
- 분만 후 빠른 자궁회복과 번식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 특히 에너지가 부족되지 않도록 하고, 적기 발정 발견과 수정으로 수태율 향상에 힘쓴다.
- 착유실에서는 소에게 안락감을 주고, 착유자의 안정된 착유습관을 위해 클래식 음악을 제공해 준다.
- 고품질의 원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체관리가 중요하고 저능력우나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는 도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- 우사내 외기온도를 고려하여 환기팬의 회전속도를 점차 낮게 조정한다.

### □ 방역 및 위생관리

-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허약해진 젖소를 개체별로 진단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후 치료해야 한다.
- 축사 소독은 질병 상황과 축사내외 온·습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다. 소독약을 뿌렸다고 소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독약의 적정 농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세균수 및 체세포수에 의한 등급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간이진단(CMT)를 실시하여 다른 개체에 전염 및 우유로의 오염을 방지한다.
- 유방염 관리를 위해 위생적인 착유관리 준수 및 종창된 유방은 소염제나 마사지 등으로 유방을 풀어주며, 유방염 발생시는 빠른 시간내 감수성 높은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한다.

## 《 돼지 》

### □ 사양관리

- 혹서기 집중 사용으로 고장 또는 노후화된 환기팬을 수리하고, 개방 돈사는 윈치커튼을 보수하여 갑작스런 찬공기의 유입으로 큰일교차에 의한 호흡기 질병의 발생에 대비한다.
- 돈사내 가스발생량과 외기온도를 고려하여 환기팬의 회전속도를 조정한다.
- 사료빈 단열재 제거 및 사료라인과 사료통, 급수기 등을 청소하여 곰팡이 등 유해물질을 제거한다.
-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돈사내 수질상태를 확인하고, 전해질 및 미네랄 제재를 음수내 혼용하여 급여한다.
- 모돈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발정 강도에 따라 인공수정을 실시한다.
- 밤에는 반드시 창문을 닫아주며 사료는 신체충실지수(BCS)에 따라 가감해서 급여한다.

### □ 방역 및 위생관리

- 일교차가 5℃이상이 되면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지므로, 자돈의 온도관리 및 밀사를 금지하며, 돈군의 전출입(All-in, All-out)을 계획적으로 실시한다.
- 온도변화에 의한 호흡기질병 증가우려로 흉막폐렴, 전염성위장염, 유행성설사병 및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다.
- 일교차에 의한 모돈 및 자돈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충분한 초유의 공급과 무유증 예방관리 및 전해질공급을 실시한다.
- 혹서기를 지난 허약 돼지는 도태 혹은 치료로 건강한 축군을 유지한다.
- 돈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,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파리 등 외부 해충을 퇴치하도록 한다.

## 《 닭 》

### □ 사양관리

- 외부기온이 저하됨에 따라 계사내 환기불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유해 가스 발생과 냉기류 유입을 막기위해 환기량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.
- 계사내 환기는 온도가 내려가면서 풍속은 점차 낮추어 주고 크로스 환기나 지붕배기식 등의 환기형태로 바꾸어 준다.
- 열풍기를 미리 점검하여 적정온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열풍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한다.
- 여름철 고온기에 높여주었던 영양소 수준을 외부기온에 맞게 조절 하여 급여하도록 한다.
- 계사내 습도관리를 위해 급수기의 위치나 급수량 및 급수기의 누수 상태를 점검한다.

### □ 방역 및 위생관리

- 혹서기 이후 전염성 질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수 및 주위 환경 소독을 철저히 한다.
- 콕시듐증과 같은 설사병 예방을 위해 계사바닥 청소 및 톱밥공급을 하여 계사내 습도 증가요인을 제거한다.
- 호흡기성 질병 발생에 주의하며 뉴캐슬병, 전염성기관지염 등이 발생한 산란계 농가는 추가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.
- 기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 발생으로 발병이 높아지는 가금티푸스 등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비타민C 등 면역증강제 및 항스트레스제를 급여한다.
-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해 분동 등 평당 사육수수를 최소화 하고, 계사 환기량을 조절하여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.